

# 구정질문 서면질문서

질문의원	최영자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 < 질 문 내 용 >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간선, 지선, 광역버스 등 880여개의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정차하는 정류장은 중앙차로를 포함하여 총 316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노선 안내표지판들은 2004년 7월에 버스 개편 당시 설치한 것이 대부분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강서구의 낙후성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선 안내 표지글씨는 작아 제대로 식별이 어렵고 버스승차대 규격, 색상, 디자인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불법접지물 떼었다 붙인 청테이프 자국은 흉물스럽기 짝이 없으며, 한쪽으로 기울어서 있는 표지판은 버스 노선 안내표지판인지 광고를 위한 표지판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은 표지판 한 개가 전부인가 하면 어떤 곳은 버스승차대, 의자, 아크릴판, 정류장명, 노선표지판은 기본 두세 개, 전광판 서비스까지 있을 것 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주 버스를 이용하면서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납니다.

정말 불만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한꺼번에 구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곰달래길입니다. 강서로구요. 강서구청 앞입니다. 방화동이고요. 서남물재생센터 앞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왜 이렇게 규격이나 시설물들이 제멋대로 설치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강서구 지형이나 환경,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정감 있는 표지판을 왜 못 만들까요? 서초구의 설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개선했다지만 무엇을 벤치마킹 하셨다는 것입니까?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3년 동안 화곡로와 강서로, 허준길과 양천길 총 65개소에 걸쳐 2억 7500만 원을 들여 보기 좋게 정비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구민은 공평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강서구민이 살기 좋고 행

복한 강서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큰 행복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눈비 올 때나 삼복더위에 버스 기다리는 동안 잠시 피할 곳이 있으면 됩니다. 시·구 예산이든 구민의 편의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중구 난방식보다는 구민에게 현실감을 줄 수 있고 강서의 특징과 친환경적인 좀더 변화된 거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지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해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정비 예산 1억원이 집행유보된 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정류장 표지판을 동시에 정비하기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시설물들이 도로 위에 줄지어 있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후되어 알아보기조차 힘든 버스노선 안내표지와 지저분하고 주변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에 개선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은 통일감을 주고 둘째, 승차대 유리벽 양면은 중앙버스전용 정류장처럼 노선 안내표지를 일직선으로 하고 밤길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씨크기와 셋째, 현 위치표시는 좌우로 놓고 넷째, 공중전화부스는 철거하며 다섯째, 도로 위에 줄줄이 세워져있는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깔끔하게 거리가 정리될 때 1석 5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노선 안내 표지는 얼룩과 훼손은 물론이고 불법접지물이 도배를 하고 있어 접지물 전용광고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편의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관내 전지역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조화롭게 설치하여 모든 구민이 편의 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공시설물의 불법 접지물을 부착을 못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근절돼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라며, 서울시가 어떻게 차후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은 탈피하고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제9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도 일 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듯이 본 의원은 우리구에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특히 우리구에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잊혀져가는 아픈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성 위안을 위해 집단적으로 동원하여 관리했던 그 당시 꽃다운 여성들, 즉 돌아가셨거나 현재 생존해계신 할머니들이십니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분들은 가부장적 정조관념으로 인한 수치심, 성병과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가족 앞에 뿔뿔이 나서기 어려웠던 이들은 가족과 이웃을 피해 숨어지내는 고통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앓고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지난 광복 66주년때에는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여 수요집회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시아 연대집회로 개최되었으며, 태국에서 오신 노수복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피해자 가족, 정치인, 대학생등 약 200여명이 참가해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날 일본군 위안부 노수복, 송신도 90세 할머니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가슴 저민 호소에 많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정기수요집회는 계속되어 이미 1000회를 넘어섰고 55년만에 찾아온 혹한 추위에도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망언만 일삼고 있어 결국 지난해 12월 8일에는 위안부 할머니 가족이 일본대사관 건물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의 억울함과 아픈 기억을 평생 가슴에 묻고 비켜갈 수 없는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생존해계시는 할머니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는 전국에 총 66분뿐이며, 강서구에도 황금자 할머니를 포함하여 네 분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황금자 할머니께서는 생계비를 아껴 모은 1억원을 사회에 장학금으로 전달하시고 지난 연말에는 모든 재산을 강서구 장학회에 증여, 유언장 작성, 공증까지 마쳐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들의 응어리진 삶을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새 이분들은 80에서 90대이십니다. 올해로 한일강제합병 102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져가듯 서서히 역사의 뒤편길로 한분, 두 분 떠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단지 뼈아픈 식민지 역사 속에 등장했던 먼 존재로서 인식할 게 아니라 친구를 대하듯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이 이분들의 고단한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할머니들께서는 결코 큰 것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강서구 58만 구민은 물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관내에 살고계시는 네 분 할머니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좀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